

〈주님께서 주신 선물〉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유아세례를 받고 부모님과 성당을 일상처럼 다녔던 것 같다. 피아노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했던, 언제부터 인가 나는 같은 또래들과 같이 미사를 안 드리고 성당의 맨 뒤에 있는 오르간 앞에서 어린미사 반주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되면 평일 새벽미사 혹은 저녁미사를 가서 반주를 하곤 하였다. 새벽미사를 가면 수녀님께서 참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여름에 신학교 방학이면 학사님들과 부제님들이 본당으로 오시는데 이분들이 새벽미사 끝나고 아침도 사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학창 시절 나는 그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다.

독일로 유학을 가서도 한인성당에서도 가자마자 어떻게 바로 미사 반주를 하게 되었고 다른 독일 성당들의 오르간 반주를 하면서 지냈었다. 다행이도 시간이 다 달라서 하루에 미사 3대 반주를 하면서 다녔던 독일에서의 일요일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거룩한 일요일이었던 것 같다. 독일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갔을 때는 한인 성당이 없고 공소만



있었는데 한달에 한번 몇몇 안되는 한인유학생들이 모여 공부하시는 신부님과 오르간 없이 미사를 드렸었다. 보통 주일엔 기숙사 근처 수도원에 가서 미사를 드렸었는데 유일하게 미사를 신자석에서 보던 시기였는데, 참으로 낯설었다. 가족 여행을 가도 성가를 부를 때 키보드가 있는데 아무도 반주하지 않으면 키보드 앞으로 가서 반주를 하곤 했었던 나에겐 잘츠부르크 시절은 온전히 미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반주를 하다 보면 온전히 미사에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고 거의 내성이 생겨서 그냥 오르간 앞에 앉아서 기계처럼 반주를 해오던 나에겐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오르간 앞에 앉아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가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미국 유학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한인 공동체 미사에 갔는데 새로 온 사람 소개를 함과 동시에 성가대 지휘자님에게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더니 나를 소개를 시켰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인성당의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처음 우드브릿지 성당에서 반주하던 순간이 생각한다. 오랫동안 해오던 것인데 한 3년 안 했다고 그 느낌이 좀 달랐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지만 잊고 살 때가 더 많았는데, 다시 시작한 한인 성당에서의 주일 미사는 매주 처음 맞이하는 주일처럼 새로운 느낌이었고 감사함이 있었다. 주님의 기도를 반주할 때는 벽참도 느꼈다.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성당 미사 반주. 간혹 주변에서 매주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묻기도 하는데, 오히려 주일에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나에겐 숨쉬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

악보를 보고 어느정도 키보드를 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주이지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삶에 대해 어렵듯이 배우게 되기도 한다. 여러 성당들을 거치며 신부님, 수녀님, 지휘자, 성가대원들, 그리고 신자들과의 다양한 만남들을 통하여 다름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넓혀 가게 되고 같은 자리에 드리는 장례미사와 혼배미사를 반주하다 보니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묵상도 하게 되었다. 언어를 몰라도 형식이 같기에 주님께 드리는 미사를 어느 곳에서나 오르간으로 봉헌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드린다.

글/이소희 베로니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3년  
06월 0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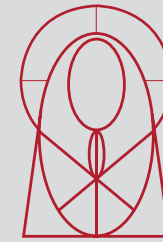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성 삼위일체〉 헨드릭 반 발렌, 1620년경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탈출기34,47ㄷ-6,8-9
- # 화답송      다니 3,52ㄱ.52ㄷ.53.54.55.56(◎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13,11-13
- #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복음      요한 복음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 성기번호      입당 81      봉헌 216      성제 344      파견 83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면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최준혁(베드로)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박순만(마리아) - 최 헬레나
  - 죽은 아기들의 영혼 - 최 헬레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최영옥(모니카) - 이서형(요안나)
  - 한상철(빈첸시오) - 자모회
  - 손흥구(바오로) - 자모회
  - 뜨거운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가정 - 채희백(바오로) 가족
  - 김정숙 목사님 - 채미영(테레사)
  - 본당 신자분들 - 이소희(베로니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5/28 주일 헌금 (152명).....               | \$1,314 |
| • 감사헌금.....                            | \$800   |
| 익명 \$500    이소희 \$300                  |         |
| • 교무금 .....                            | \$1,430 |
| 백상현(6)   양영길(3-6)   허중(5-6)   이승권(1-6) |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5/26까지 약정 금액은 \$38,634.14 (104.42%)입니다. 목표액\$37,000에서 \$1,634.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읽어 드립니다.**

• 주제: 교황청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참조) 예비자 교리서 이어서.

• 일시 : 6월 6일(화) 저녁 8시 30분

• 줌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Passcode: 1111

-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성당 정문 입구 나무 심기 및 키 큰 나무 제거
  - 주일학교 텃밭 울타리 설치
  - Fire Department 후속 점검

**첫영성체 예식 안내**

• 6월 11일(주일)오전 9시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를 받는 Gabriel Han, Chelsea Curtis, Teo Kim, Lainey Labanich, Krysten Trinidad 5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타천 교구 공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준비하며 9일기도를 성실히 바칩시다.**

- 2차 헌금**
- 6월 11일: 유틸리티
-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6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교우분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주일 미사 후 (2023년 6월 4일 시작)
  - 봉사 당번: 6/4 노스에디슨, 메타천 7/2 랫거스 8/6 먼로

**6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책 1년 구독 신청 (2023년 8월 - 2024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90불 / 대형 매일미사 120불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구독 비용을 봉투에 넣으셔서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사제관 메일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 7월 2일(주일)
  - 문의: 사무장 732-258-5998

**6월 8일(목) 오전 11시, 경당에서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6월 18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기획 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후 유병기(베네딕도)형제님 댁

**이스트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공지사항**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금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일 성당 이용 후 문단속과 소등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 문단속과 소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대회 봉사자 분들께서는 미사 후 성당 내 모든 전등을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정문 바다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이 화장실 휴지를 번기에 가득 버리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부모님의 지도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제1독서: 탈출기34,47c-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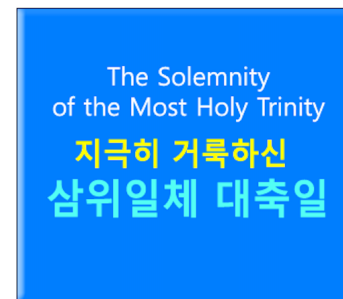
그 무렵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13,11-13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3,16-18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용 임마누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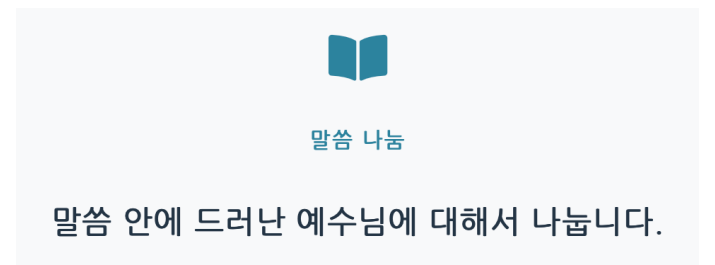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삼위일체 대축일은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주님 한 분이라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던 신비이기에 신자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님의 신비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성호경입니다. 성호경은 언제 굽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미사를 시작할 때, 심지어는 밥을 먹기 전에도 굽는 것이 성호경입니다. 이러한 성호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만큼 매 순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성호경을 굽는다는 것은 매순간 신앙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간단한 성호경 굽는 것이 뭐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호경을 굽는 순간 우리들은 이제 내 이름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 자주 주님을 향한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굽는 성호경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준다는 사실을, 내가 굽는 성호경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간직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대축일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성호경 한 번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주님께로 이끄는 작업을 기억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대전교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나 자신은 언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누군가에게 기도와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복음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